

변형된 Uncut Roux 개선술식의 동물실험을 통한 조직학적 변화와 임상적 결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외과학교실

김명남, 이문수, 채만규, 김성용, 백무준, 김창호, 송옥평, 조무식

(배경) 위절제술후 Roux-en-Y 문합술식의 Roux stasis 증후군과 담즙역류를 막고자 시도된 Uncut Roux 술식은 수기가 간편하며 공장의 수입각 폐쇄로써 역류성 위염 및 식도염을 줄일 수 있고, myoneural continuity의 유지로 Roux stasis 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어 이상적인 재건술식이라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술식의 단점으로 staple dehiscence가 보고되고 있어 이를 변형 보강한 Uncut Roux 개선술식의 동물실험을 통한 조직학적 변화 및 개선술식을 적용한 환자의 술후 상부위장관 조영술과 임상적 증상들을 통해 개선술식의 적합성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동물실험으로 기존의 Uncut술식과 개선술식을 각각 시행하여 술후 15일째 재개복하여 수입각 폐쇄부를 적출하여 조직학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1997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일반외과에서 위암으로 위절제술후 Uncut Roux 개선술식을 시행받은 2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후 2주와 8주에 상부위장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개선술식으로 보강된 staple line의 dehiscence여부와 leakage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 본원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보고에서 위전절제술후 Uncut Roux 술식을 시행한 41예중 수입각을 staple로 폐쇄한 23예와 5호의 굵은 견사로 횡단 봉합한 18예를 술후 상부위장관 조영술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 각각 8예(34.8%), 7예(38.9%)에서 수입각 폐쇄부위의 조영제 통과를 보여 staple과 견사를 이용한 두 술식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새로운 보완책이 필요함을 보고한바 있다. 이후 동물실험에서 staple을 이용한 기존의 Uncut 술식부위와 보강봉합을 통한 Uncut 개선술식 부위의 두 조직을 비교 관찰한 결과 후자가 전자에 비해 염증세포 침윤과 육아조직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었고 섬유화의 정도가 심하게 관찰되었다. 임상적으로도 기존 Uncut 술식의 staple dehiscence율이 34.8%로 보고되었던 반면, 변형된 Uncut 개선술식을 시행 받은 213명의 환자에게 술후 2주와 8주에 상부 위장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전례에서 폐쇄된 수입각으로 조영제가 통과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위절제술후 Uncut Roux 술식은 이상적인 재건술식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staple dehiscence와 leakage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Uncut Roux 개선술식은 권장될 만한 술식이라 생각된다.